

구원하시는 예수와 만난 사람들

* 3/17(수) 사도행전 26-28장

베드로 (1-12장)	유대와 사마리아 (8-12장)	바울 (13-28장)
예루살렘 (1-7장)		땅 끝 (13-28장)
복음의 성장 승천, 오순절 성령, 선포와 표적, 일곱 집사 1-6장 스데반 순교, 펑박과 박해, 선포와 표적 7-8장 1-4장 거룩한 영, 성령이신 5-7장 성전보다 크신	복음 확장의 초석 사울의 회개 9:1-31 베드로와 고넬료 9:32-11:18 안디옥 교회 11:19-30 베드로 투옥, 헤롯의 죽음 12장 8-10장 부활하신 11-13장 온 세상의 왕이신	복음의 확장 1차 여행, 예루살렘회의 13-15:35 2차 여행 15:36-18:22 3차 여행 18:23-21:16 펑박, 잡힘, 상소, 로마행 21:17-28장 14-17장 새 언약이신 18-21장 힘이요, 능력이신 22-25장 세상의 도성에서 26-28장 구원하시는

Before 줄치며 읽기

바울 앞에 계속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기회로
바꾸십니까?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한 후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 전파>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26:22-23).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저 순종하며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의 로마행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After 묵상하기

매순간의 문제들과,
매순간의 구원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와 로마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폭동을 막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였지만,
로마가 파견한 총독들은 자질도 부족하고 부패했습니다.
유대의 원성은 좀처럼 잣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도서

백주년기념성서주석
바울평전(톰 라이트)

일족즉발의 유대인 여론을 익히 듣고 있는 황제 앞에
유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상소한 로마의 시민.
황제가 바울의 상소를 빌미 삼아 유대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민족을 고발한 자로 여겨졌습니다(28:19).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출발했지만,
바울의 로마행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23:11).
바울이 바랄 것은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27장에는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다에서의 <구원>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세례>를 떠오르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문제마다, 매순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27:37).
로마의 백부장, 항해 전문가들, 바울과 같은 지식인에서부터 노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한 배를 타고 갑니다.
로마는 부족한 곡물을 이집트로부터 매번 공급받아야 했으므로,
항해가 위험한 시기에 나서는 선주들에게 나름의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선주와 선장이 위험을 알고도 배를 띄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항해가 어려워 보였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27:11).
바다를 잘 아는 항해 전문가들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닻을 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얼마든 승객을 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27:30).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짐들은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27:19).
배의 기구들도 더 이상 소용없어 내어버립니다(20절).
마지막에는 곡식까지도 바다에 버립니다(38절)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지만, 문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몰려옵니다. 숙식의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리고, <살인자>라는 정죄와 독설로 괴롭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28:24).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28:26-27).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6:11)”

수많은 문제 앞에서 바울은 주님을 신뢰합니다(27:23-24).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구원의 주님을 경험합니다(28:6, 10).
<구원하시는> 예수와 만난 바울은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27:25, 34).”

바울은 황제 앞에 설 일 또한 근심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28:23, 31).
제국의 연금과 사람들의 배척도 <구원>의 복음을 결코 가둘 수 없었습니다.